

지역 청년들의 외침 “소중한 한표 꼭 행사합시다”

광주·전남 대학생·시민단체, 캠퍼스·강의실·도심 등서 투표 독려 실시간 방송 등 온라인 캠페인 활발... 청소년 유권자 참여 호소도

“우리의 소중한 한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초반 접전이 예상됨에 따라 광주·전남 학생들과 시민단체 등이 투표 독려 활동에 팔을 걷어붙였다.

광주·전남의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치러진 지난 4~5일, 사전투표율이 치솟았지만 마지막까지 초반 접전 상태로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투표 참여 캠페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8일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전남 대학생, 시민단체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투표 참여 독려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 안팎에서는 선거 막판 ‘2030’의 표심이 선거의 승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 청년들의 투표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은 투표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대선 투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은 이같은 점을 감안, 지난 2일부터 매일 전남대·조선대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 뿐만 아니라 강의실까지 찾아 투표독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20년 총선시에는 코로나19로 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변경돼 외부로 캠페인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올해는 대면수업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대학생의 투표 독려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투표합시다’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며 정치 개혁을 위한 젊은층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지역의 20~30대 청년들 투표율이 높아야 청년들의 목소리에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캠페인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8일 오후 전남대 후문에서 캠페인을 벌인 한수진(25)씨는 “강의실에서 응원하는 학생들이 박수를 쳐주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줘 더 힘이 났다”며 “역대 비호감 선거라는 점에서 선거에 관심 없는 시민들이 자칫 투표장을 찾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광주시 동구 충장로로 자리를 옮겨 투표독려 캠페인을 벌였다.

청소년 유권자들에 대한 투표 독려 활동도 이어

지고 있다. 광주YMCA를 중심으로 청소년 단체·시설 및 교육 단체들은 ‘2022청소년참여권력대운동본부’를 구성,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도심 곳곳에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 청소년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로 만들어 집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청소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들이 모이는 시설에 투표장을 만들어 ‘모의투표’를 진행하는가 하면, 투표가 가능한 2004년 3월 10일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광산구청소년수련관, 서구청청소년수련관, 일곡청소년문화의집 등 광주지역에 있는 청소년시설, 기관, 단체들도 청소년모의투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청년유니온도 ‘2022대선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해 투표소 앞 인증샷을 찍어 문자를 보내면 참

여한 사람 수 만큼 연대의 의미를 담아 우크라이나에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 독려 캠페인은 온라인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전투표 때 ‘인스타그램’에 손등에 짙은 기표 도장을 올리는 투표 인증샷을 선거당 일에도 이어가는 등 투표 참여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중이다.

대통령 후보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실타래 챌린지 캠페인’의 경우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적어 사진을 찍어 올리는 캠페인으로, 지역민들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살 만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사진을 올리고 있다.

광주시 남구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페이스 북에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투표과정과 주의사항 등을 담은 게시물을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어 올리며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밤 야산 농자재 창고에 웬 사람들이?

승합차로 함께 이동 상습 도박... 화순경찰 29명 검거

깊은 밤, 인적이 드문 야산 농자재 창고에서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9명은 지난 4일 밤 11시 30분께 화순군 능주면 한 야산 50평 규모의 농자재 창고에서 일명 ‘도리지고맹’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도박장 개설)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산 속에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화순경찰 소속 수사과와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경찰관 25명을 투입, 도박판이 무르익을 때까지 야산에 잠복한 끝에 29명(남성11명·여성18명)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박자금 3100여만 원을 압수했으며 이들은 판돈 5~10만원짜리 도박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모두 50대 이상으로, 대부분 가정주부와 자영업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8~10명씩 중간지점에서 만나 승합차로 함께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도박장 운영자들은 도박장 주변을 지키는 ‘문지기’와 돈을 빌려주는 ‘전주’ 등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화순 뿐만 아니라 광주와 나주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입건된 A씨 등 29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세계여성의 날’ 맞아 퍼포먼스

8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3·8세계여성의 날’ 광주전남여성대회에서 대회 참가자들이 열악한 여성 임금 실태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음주 운전 사망사고 내고 도주... 택시기사 신고로 검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8일 음주 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A(21)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2시께 자신의 차량을 몰고 광주시 서구 농성교차로 인근 도로를 지나다 갑자기 차선을 침범하면서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현장을 목격하고 쫓아간 택시운전자 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로 현장에서 숨졌고 동승했던

다른 고교생은 부상을 입었다.

광주경찰이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시간이 연장된 뒤 음주 운전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3주간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 시행 이후 음주 교통사고가 133.4% (6건→14건)늘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 같은 기간 음주 운전 단속 건수도 65.2%(115건→190건) 증가했다.

광주경찰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유흥가나 식당가를 비롯한 음주운전 위험구간, 음주신고 다발지역 위주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 활동을 적극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성평등 세상 위해 적극적 투표 참여를”

민주노총 세계여성의 날 맞아 촉구

노동계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세계여성의 날 114주년을 맞아 성평등 세상을 위한 적극적 투표 참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부는 8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한 정치에 투표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피해가 여성에게 집중되고 고용 충격도 여성들에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들어 사회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 일터에서의 성차별이 없는, 여성의 삶이 존중받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간병 노동자들의 감염 사망, 플렌터 노동자들의 집단 감염을 계기로 사회가 멈춰야 할 때 필수노동자 중 대다수가 여성”이라며 “이번 대선에 여성의 목소리가 외면되고 있다”며 성평등한 정치를 위해서라도 투표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회사 사정상 “정리” 합니다. 문의 010-3605-5000

상업부지, 땅

신안동, 176평, 오피스텔 허가 득
매매 - 21억, 조정가

덕남동, 임야, 투자

660㎡, 지분매매, 개발호재 다
매매 - 4400만원

제일오피스텔, 급매

수기동, 33평, 사무실 전용
급매 - 8천만원, 즉시 입주

오피스텔 부지

대인동, 156평, 허가 득
매매 - 18억 5천만원, 조정가